<조선의원 긴급 기자회견문>

- 지도부에 긴급 의총 소집요구, “당장 오늘이라도 모여야 합니다”
- 현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와 민주당의 지향점 재설정 필요
-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등 폭넓은 공론화로 민주당 살려내야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고, 지지해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은 3번의 선거를 연속으로 패배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당을 다시 살려내야 할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대선·지선 결과 및 지난 5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평가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주당의 앞으로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수가 폭넓게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소수가 밀실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의원들과 당원, 지지자, 일반 국민 등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도부에 지체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모여야 합니다. 일단 첫 의총으로 시동을 걸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과도기 지도부의 구성 문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수가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다수에게 그 추인을 강요하던 과거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성찰과 좌표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조선의원들도 이 일에 당과 우리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심정으로 당 쇄신 논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조선의원모임(더민초) 운영위원회